

SUMMARY ESSAY – THE CONTEXT SECTION

By Jorge L. Julca
Southern Cone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 Argentina

요약 논문 – 상황 분과

호르헤 훌카 (서던 콘 나사렛신학대학원-아르헨티나)

번역: 정무성 (한국 나사렛대학교)

고니스(Gonis), 벨라스코(Velasco), 크로포드-말룰레카(Crofford-Maluleka) 그리고 느흘렌게트와-느크하타(Nhlengethwa-Nkhata)가 발표한 상황 분과 논문들은 금세기 나사렛교회의 선교적 상황화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교회가 현존하는 지구적 상황은 실로 다양하기에 이들 논문들이 다루는 주제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들은 선교적 상황화에 수반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들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시한다.

선교적 상황과 완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 상황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필히 제기되어야 할 핵심 질문이다. 왜냐하면 신학은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고 적합하게 전달할 때 그 통전성이 온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 선교적 과업의 실행과 완수는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특수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교회는 상황적 실태와의 역동적인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상황 분과 논문들은 우리 나사렛교회가 국제교회로서 직면하는 도전들의 필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런 도전들을 교회론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시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지역적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지구적인 보편적 선교 공식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론적으로 선교적 도전들을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먼저 다문화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회적 변혁성과 상황적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된 우리의 교회론적 과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선교적 도전과 완수

지난 1 세기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참여하면서 나사렛교회는 전세계의 다양한 상황 속에 그 신학과 실천을 구현하였다. 상황 분과 논문들의 저자들은 공히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직면하는 선교적 도전들에 관한 생생한 실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다.

1. 크로포드와 말롤레카는 은사주의적 경향이 지배적인 남아프리카의 상황에서 나사렛교회가 직면하는 신적 치유라는 도전을 다루면서 인간 존재의 육적인 양태와 영적인 양태 모두를 아우르는 신적 관심에 주목한다. 논문에서 그들은 악령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세계와 인간사와의 밀접한 관계성에 기반한 통전적이면서 실용적인 아프리카 세계관 속에서 신적 치유라는 주제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사렛인들을 포함해) 아프리카 신자들은 이런 전통적 세계관을 통해 성서를 해석하며, 그 결과 사악한 힘들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는 영적 전투의 맥락에서 기독교적 삶을 이해한다. 이런 시각에서 신적 치유를 위한 기도는 반(反)하나님나라 세력을 격파하고 하나님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창 끝(역자 주: 강력한 영적 무기)”이 된다.

2. 느크하타와 느홀렌게트와는 에이즈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스와질란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에서 교회가 직면하는 선교적 도전을 다룬다. 이런 현실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한 해석과 치유책을 주도적으로 제공한 부류는 신오순절운동 계열이다. 문제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통전성이 아닌 아프리카적 상황에 기존하던 과(過)-종교성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의학적인 예방과 치료는 도외시된 채 영적으로만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신오순절계의 배타적인 접근은 변영신학, 믿음주의, 적극적인 사고 등과 결합되어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을 인간적 필요와 관심에 부합하는 복음으로 변질시켰고, 이런 인본주의적 복음은 치유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혼란과 좌절과 분노를 야기시킨다.

3. 고니스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끊임없는 대결 양상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공포를 창출하는 아프리카 세계관의 선교적 도전을 다루면서 웨슬리안 전통이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한다. 저자는 먼저 ‘승리자 그리스도(Christus Victor)’라는 개념을 성서적,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이런 시각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모든 압제를 해방시키고 모든 세력 위에 군림하는 통합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프리카 문화는 본래 인간 삶의 통전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영적 전투에 대한 통전적이며 포괄적인 인식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영적 전투에 대한 아프리카의 대중적 접근이 혼합주의적 성서 이해 속에 악한 세력에 대한 과장과 공포에 치우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죄와 공포와 악령으로부터 항구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 기초의 확립과 이를 통한 영적 전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역설한다.

4. 벨라스코는 조직의 다양한 구조와 독특한 가치 그리고 교단의 신학적 기준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초기 기독교, 종교개혁, 근대성, 웨슬리안 부흥을 검토하면서 교회 내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한 저자는 특히 웨버(Weber)가 경고한 제도화의 영향과 위험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인간 관계성과 기능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웨슬리안 운동의 “비계층적 구조”와 “민주적 정신”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한 웨슬리의 공헌을 강조한다. 논문의 초점은 나사렛교회의 조직 모델에 관한 갱신에 맞추어 졌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갱신은 조직 구조가 본질상 비신학적이 아니라는 사실의 인정 속에 웨슬리안 교회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 도출되는 조직 모델은 성서적으로 타당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통시적으로 가변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런 조직 구조의 구축에 있어 포용적, 비판적, 겸양적 대화의 자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호 교감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기능적 측면에서 조직 구조를 재고하면서 성결교회로서의 우리의 독특성을 고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선교적 활동시 주요 고려사항

각각의 논문에서 교회의 선교적 도전에 대한 저자들의 강조점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이를 고려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활동시 고려되어야 할 신학적 성찰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교회론과 세계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교회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각양각색의 세계관과 조우하게 된다 (고니스, 크로포드, 말룰레카). 문화적,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세계관—“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일종의 여과 장치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포함한 모든 현실을 해석한다. 교회의 선교적 활동에 있어 우리는 바울의 조언(살전 5: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에 따라 각 문화의 세계관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정 종족의 문화적 양태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그들의 세계관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런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의 관행을 창조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다양성

제출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나사렛인들을 포함한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실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 여타 신학적 조류의 영향을 지적한다. 크로포드-말룰레카, 느홀렌게트와-느크하타 (“과(過)-종교적”) 그리고 고니스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다양한 신학 전통의 경연장으로 특히 신오순절 계통의 신학은 거의 모든 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불가항력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는 더욱 작아지고 더욱 연결되는 지구촌 시대를 조장하며,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양각색의 신학적 경향들과 복음주의적 형태들이 더 빨리 확산되어 더 쉽게 모방된다.

이렇게 세계화가 촉진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일관성을 견지한 채, 자신의 정체성의 보존하고, 불확실성을 명백히 하고, 이단을 폭로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현실 경험에 대한 통전적 접근

제출 논문들 공히 교회가 통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신적 치유, 에이즈, 영적 전투 등). 인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전(全)존재론적 개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삶의 다른 차원은 도외시한 채 오직 영적 필요에만 관심을 쏟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육신과 영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를 결코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필요는 그 차원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4. 정체성과 상황화 간의 역동적 긴장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상황화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상황화와 정체성 간에는 역동적인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다. 우리의 교회론적 논의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양극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체성의 이름으로” 문화적 특수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면서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반면에 “상황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동체적 소속감과 신학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인들과 요소들을 폄훼하면서 도외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논문들은 우리가 성서의 보편적 원칙과 우리의 독특한 웨슬리안 신학 전통을 공히 참조하면서 상황화 과정의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답해야 함을 주장한다 (크로포드, p. 11; 느홀렌게트와, p. 12; 고니스, p. 1; 벨라스코, p. 11)

5. 선교적 상황화와 교육의 역할

웨슬리안 관점에서 선교적 상황화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도전들을 바르게 이해, 분석,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해당 세계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제자화 과정과 목회 형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 (크로포드-말룰레카, p.8; 고니스, p. 9; 느홀렌게트와-느크하타, p.12). 상황은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발견과 학습의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실태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신자들을 위한 교육 교재의 출판과 보급은 그들의 신앙과 상황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웨슬리안 신학은 구원과 거룩, 영성과 교제, 신앙과 순종 그리고 예배와 헌신 사이의 심오한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 하에 상황의 긴급한 필요에 대해 온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그 중차대한 의의와 가치가 확인된다.

소모임 토의를 위한 질문들

1. 당신의 현실에 상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웨슬리안 신학의 관점에서 그 대답들을 요청하는 상황화의 도전들의 구체적 예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세계관이 당신의 상황에 존재하는가? 나사렛교회는 어떻게 이런 도전들에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2. 상황화와 교리적 정체성 사이의 경계는 무엇인가? 상황의 복합적인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복음의 본성과 특성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상황화할 수 있는가?
3. 다른 신학적 전통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사렛 교회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쳐 왔는가?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지만 다른 신학적 조류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목회적 영역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4.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조직 구조와 선교적 요소들 간에 응당 발생해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당신의 상황에서 나사렛 교회의 제도화는 어떤 특징들로 귀결될 수 있는가?
5. 우리는 웨슬리안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적 도전들에 창조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차세대 목회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지역에서는 목회 형성에 관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이런 필요에 어떤 방법으로 반응해 왔는가?